

오늘 복음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말해 줍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세례자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첫 단계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죄인임을 반성하고 죄스런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귀의해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한국가톨릭용어큰사전).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느님 앞에서 저질렀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마음을 바로잡고, 잘못된 가치 우선 순서를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제일 높은 가치는 ‘하늘나라여야 함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면서 세상일에 매달리던 것을 바꾸는 행위가 회개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마태 3,11)

그러자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물려와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표시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징벌을 피하고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마태 3,7)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살 마음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결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저 하느님의 진노가 무서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음은 고치지 않고 주일미사나 교회 행사에 몸만 참여하고 있거나 않으십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벌이 두려워 껍질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않으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술의 다짐이나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전체가 변화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느님께로 향하되 영거주춤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서부터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일임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생활 전체를 하느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8)고 외치는 말씀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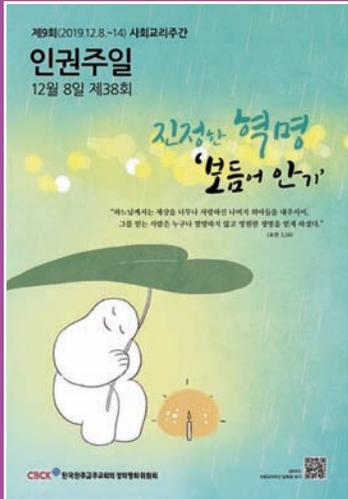
아멘!





제38회 인권주일

진정한 혁명-보듬어 안기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색했던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Pascal, 1623-1662)은 유고집 『팡세』(Pensées)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글을 남겼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뛰어넘으려 인간은 인간을 무한히 초월한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고.

국정농단의 적폐로 피해를진 민족의 비참함을 촛불혁명으로 다시 세운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인권을 가장 앞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여 준 작금의 모습과 우리 사회의 양상을 보면 그렇게 외치던 인권이 도로 의문에 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민생고와 사회적 불안을 호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무관심의 그늘에 놓여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되고, 정권에 사로잡혀서 인권은 그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촛불혁명이든, 국민혁명이든 제대로 된 혁명이기 위해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시(詩) <혁명>을 다시 읽게 된다.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예요.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꺼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삶은 보듬어 안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되지요.
혁명이라는 것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것이예요.
아직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만나라 이거예요.
보듬어 안고 가자는 거지요.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때 변하는 거거든요.

보듬어 안는 일로 십자가의 죽음에 처해지더라도 그것만이 참평화에 이르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예 예수님께서서는 그 길을 당신이 받아 내야 할 세례라고까지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에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에 맞설 것이다.”(루카 12,49-52)

올해 들어 우리는 유난히 진영 논리와 이념 투쟁이 극성을 부리는 속에 살고 있다. 분열과 대립으로까지 보이기도 하는 이 모습들이 그저 무의미한 적대와 대립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나가는 길에서 겪는 건설적인 갈등이요 과정이길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이런 시간을 통해 참된 것이 드러나고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지어 내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마도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참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큰 홍역을 치러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듬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보듬을 때 생명은 탄생하고, 보듬어 안을 때 생명은 건강하게 지켜지는 법이다.

인권은 폭력적인 투쟁이나 이념적인 논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을 때 진정한 인권도, 평화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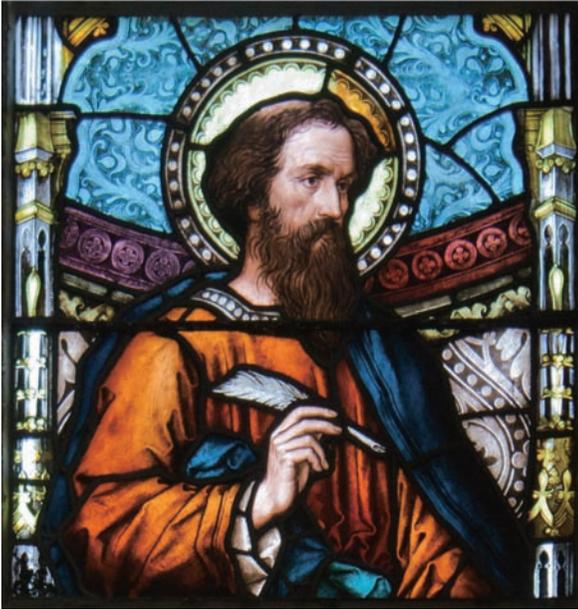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요한 3,16)

2019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사도행전 읽기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바오로가 로마에 갇히게 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근 30년 간 그리스도교가 지중해 연안 북부 지역, 곧 오늘날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제국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퍼져 나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루카는 처음 이 글을 적으면서 아무런 제목도 붙이지 않지만, 후대 교회 사람들은 이 책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책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성령 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새로 탄생한 교회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것은 모두 성령의 활동 덕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일을 한 도구들이 베드로와 바오로 같은 사도들이기에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방해 보인다. 다만, 바오로의 제자 루카가 저술한 것이다 보니 다분히 바오로 활동에 치중되고 있기에 사도행전이라기보다 바오로 행전처럼 보이기도 한다.

루카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이 네 복음서 다음에 위치해 있기에 이 책이 루카 복음에 이어진 책, 곧 루카가 저술한 두 번째 책이자 루카 복음서의 후속편이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사가가 복음서에 이어서 저술한 책임이 분명하다. “테오페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루카 1,1) 또한, 사도행전의 수신인으로 호명되는 ‘테오페로스’라는 이름은 루카 복음 서두(1,3)에도 언급되는데, 사도행전과 루카 복음 모두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낸 글임을 알 수 있다. “존귀하신 테오페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테오페로스’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하느님을 지지하는 자’라는 뜻이다. 학자들은 이 이름이 모든 그리스도교인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한다.

사도행전이 루카 복음서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루카 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루카복음서를 충분히 읽은 뒤에 사도행전을 읽어야 비로소 사도행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루카 복음서에 관해서,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계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루카 복음 먼저 살펴보기

학자들에 따르면 루카 복음은 마태오 복음과 같이 마르코 복음과 예수 어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루카는 복음서 서두에서 자신이 여러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음

을 인정한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 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루카 1,1)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오로의 제자였던 루카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신앙을 전해 준 신앙 선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었다. 루카는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이해하여 글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사가들과는 다른 다소 독특한 신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예수님의 업적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곧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던가, 예수님이 가난한 이, 소외된 이, 죄인들을 위해 좀 더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던가, 재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던가,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특별히 부각시킨다던가 하는 점 등이 그러하다. 또한, 루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서 언급했어야 할 이야기인데도 사도행전을 위해 남겨 둔다거나, 복음서의 예수님 사건마저도 제자들, 특히 베드로, 스테파노, 바오로에게 일어날 사건을 미리 준비해 주는 사건인 듯 이야기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역사

루카는 구원역사에 관해서도 다소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데,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이어 읽다보면 루카가 그리는 구원역사 전체의 그림을 파악할 수 있다. 루카는 구원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구약 시기의 시대로 아담에서 세레자 요한에 이르는 시대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루카 16,16) 두 번째 시대는 신약 시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겹친다. 이 시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연결해 주는 구심점이며 그의 시대는 세레(루카 3,1)부터 승천까지라고 할 수 있다.(사도 1,22) 마지막으로 교회의 시대로 이 시대는 사도 2,1에서 시작되어 사람의 아들이 오는 세상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시대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는 바로 이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루카의 글에 따르면 구약에서 예수에게로, 또 예수에게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각각 두 개의 다리가 나타난다. 루카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인 즈카리야, 엘리사벳, 목동들, 시메온, 안나가 신약의 인물인 마리아,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다리를 건너간다. 여기서 구약의 인물들이 매우 나이 많은 인물로 등장하고 신약의 인물들이 모두 젊은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또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은 신약과 구약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된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늙은 여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구약의 마지막 인물 세레자 요한과 신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젊은 여인 성모님의 태중에 있던 신약의 첫 인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리는 사도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복음서의 주인공 예수는 열두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령, 곧 제자들의 설교와 기적을 통해 교회를 건설하게 될 성령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준비하도록 다리를 놓아 준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할 주제 하나를 알려주신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사도 1,12-8,1) 온 유대와 사마리아,(사도 8,2-40)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사도 9,1-28,24)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다. 물론,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끝이 난다. 아마도 로마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희망하는 교회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일림



교구장 동정

청년 간부 연수

일사: 12월 7일(토)~8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앙대학 졸업식

일사: 12월 8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견진성사

일사: 12월 15일(주일)
장소: 남해성당

교구청 직원 연수

일사: 12월 13일(금)
장소: 교구청
내용: 직원 연수로 교구청 휴무

마산 제2지역 판공일자

12월 17일(화) 19:30 월영성당
12월 18일(수) 19:30 월남동성당
12월 19일(목) 19:30 상남동성당, 진동성당
12월 20일(금) 19:30 남성동성당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사: 12월 1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성모신심 묵상회 6주간

일사: 11월 5일(화)~12월 10일(화)
강사: 12월 10일(화) 박지영(살바아) 수녀
미사: 주용민(리노) 신부
장소: 평거동성당(진주)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일사: 마산지구- 12월 11일(수) 14:00
장소: 양덕동성당
일사: 창원지구- 12월 12일(목) 14:00
장소: 반송성당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제445차 가나혼인강좌

일사: 12월 15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028~9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사: 12월 18일(수) 10: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028~9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매(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매(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매(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매(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매(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매 2, 4주(토) 19:30/ 대진성당
거제: 매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매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매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매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위원회/기관/단체

전례와 꽃 예술학교 종강미사

일사: 12월 9일(월) 11:00
장소: 교구청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채용분야: 주방 직원 1명 (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신부 추천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마감: 12월 15일(주일) 17:00 (방문, 우편, e-mail / 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055·221·1891~2, cecomasan@gmail.com

마리아사제운동 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월기도

일사: 12월 16일(월) 13:00~15:00
장소: 사파동성당
문의: 회장 010·9399·5454

200차 ME주말 안내 (2박 3일)

일사: 1월 10일(금) 19:00~12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 201차 ME주말: 2020년 2월 21일(금)~23일(주일)
● 202차 ME주말: 2020년 4월 17일(금)~19일(주일)

수도회

렉시오 디버나 피정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사: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가르멜수도회 후원회미사

일사: 12월 14일(토) 10:30
장소: 마산 가르멜수도원 대성당
문의: 055·271·4241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사: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2월 1일 KOREAN AIR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 만원
2월 10일 Asiana Airlines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2일 Asiana Airlines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3일 KOREAN AIR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 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가톨릭신문 투어

- ▶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원
- ▶ 1/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 ▶ 2/15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원
- ▶ 2/15 이탈리아 프랑스 12일 428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일림

평신도 기도학교 (1년 과정)

일시: 매월 셋째 주일 또는 넷째주일 선택가능
대상: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평신도 누구나
문의: 작은자매관상선교회 010·6626·7665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 기사

서울 삼성산성지 2박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시: 12월 13일(금) 18:00~15일(주일) 15: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손광배 신부, 김중일 신부 외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발: 마산역 김안과 앞 (10:30 출발)
문의: 010·7375·4600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입학상담: 053·850·2580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칠암동성당 제2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이갑순(마리아)
사목부회장(남성): 현병운(프란치스코)
사목부회장(여성): 배경미(루시아)
총무: 박정만(프란치스코)
재정분과장: 김상일(요한)
교육분과장: 이미숙(마리아)
선교분과장: 송동주(바오로)
전례분과장: 최말영(이레네)
구역분과장: 이항미(아네스)
청소년분과장: 강은경(체칠리아)
사회복지분과장: 김경희(엘리사벳)
가정사목분과장: 백귀연(하아친타)
시설분과위원장: 도창일(차백요셉)

상평동성당 제2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윤종섭(요셉)
사목부회장(남성): 박천출(베드로)
사목부회장(여성): 강점돌(수산나)
총무: 조재성(라파엘)
재경분과장: 장명조(베르나르도)
전례분과장: 정혜원(글라리아)
선교분과장: 김상임(소화데레사)
교육분과장: 김가나(아멜라)
홍보분과장: 이진우(다니엘)
가정분과장: 노정순(요안나)
청소년분과장: 조승재(요셉)
복지분과장: 강현중(사도요한)
시설분과장: 송호준(마카엘)
구역분과장: 남돌점(데레사)

22대 푸르실로 임원 구성

담당사제: 이청준 F. 하비에르 신부(교육관)
주간: 정몽길 바오로(반송)
여성부주간: 최정미 데레사(월남)
남성부주간: 주성 알렉산델(삼계)
총무부장: 이창수 이나시오(가음동)
홍보차장: 이승헌 레오(반송)
교수부장: 김미정 안젤라(사파동)
전례부장: 홍은미 안나(덕산동)
활동부장: 김영철 요한(반송)
조직행사부장: 김종인 유스티노(완월동)
음악부장: 이지영 아네스(완월동)
팀화합부장: 박성철 F. 하비에르(반송)

옥포성당 제1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임영섭(벤첸시오)
사목부회장(남성): 류열수(다니엘)
사목부회장(여성): 김기영(크리스티나)
기획(총무)분과장: 이현석(안드레아)
재경분과장: 김경문(바오로)
전례분과장: 주승채(마리오)
복음화분과장: 김성길(사문)
교육분과장: 양한희(노엘라)
부위원장(가정분과담당): 손복희(루피나)
사회복지분과장: 박무용(프란치스코)
구역분과장: 이영자(빅토리아)
청소년분과장: 이영진(피비아노)
시설분과장: 신주현(프란치스코)
미디어(홍보)분과장: 김상훈(가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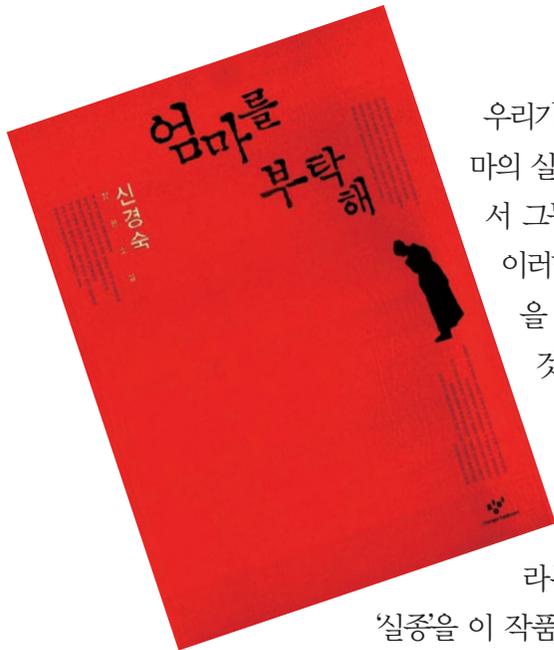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 구	12월 9일(월) 19:00	월남동성당	대림은 무엇인가?	정중규 신부(클라로, 원로사목)	정중규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12월 9일(월) 19:00	반 송 성 당	기도의 응답	김재중(요셉, 광주교구)	이영민 신부(베드로, 삼위일체)	010·9421·3377
진해지구	12월 9일(월) 19:00	중 앙 성 당	예수님 어서 오세요-마리아나-(목시록)	박효철 신부(베네딕도, 청주교구)	박효철 신부	010·7566·9441
청 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2월 15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h3>라파엘여행사</h3> <p>◆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12/3 (289만원) 1/22 규정(299만원)</p> <p>◆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1/9, 3/4</p> <p>◆ 설특선 이태리 일주 9일 (299만원) 1/21</p> <p>◆ 성모발현지 13일 11/26(379만원), 2/3 (389만원)</p> <p>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p>	<h3>(주) 성운고속관광</h3> <p>"신자분 우대 합니다"</p> <p>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p> <p>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p> <p>대표 김중규 바오로</p> <p>010.4588.3448/055.273.0505</p> <hr/> <p>우리농 우리농 직매장 2호</p> <p>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p> <p>가톨릭여성회관 입구</p> <p>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p> <p>055.293.5605</p>	<h3>가톨릭 트러블</h3> <h3>산티아고 순례길 41일</h3> <h3>루르드/ 파나마 성지 순례 일정</h3> <p>439만원 (20년 4월 2일, 인솔자 동행)</p> <p>070-4086-0207 www.catravel.co.kr</p> <hr/> <p>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p> <p>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p> <p>비누 만들기 강좌</p> <p>www.jhsc.or.kr</p> <p>055.541.0126, 055.605.6297</p>	<h3>신세계 피부비노기과</h3> <p>피부질환 / 비노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p> <p>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p> <p>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p> <hr/> <h3>명례성지 소금 판매</h3> <p>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p> <p>합초 소금 200g 1만 원</p> <p>신청 : 055.391.1205</p>
--	---	--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 허기원 마르첼리노 신부

우리가 수도 없이 불러 본 ‘엄마’라는 이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은 이 엄마의 실종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남은 가족들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엄마를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떠올리게 된다. 우리 또한 사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부모라는 존재를 넘어서 삶에 있어 소중한 것들을 잃고 난 후에 뒤늦게 후회하며 자책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한 가족의 엄마로서만 살아온 한 여자의 지난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선사한다. 곧, 엄마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엄마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에 잘못 박혀있는 엄마라는 존재의 인식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아마도 작가는 엄마의 이러한 실존적인 ‘실종’을 이 작품의 핵심적 사건인 지하철에서의 ‘실종’을 통해 의도적으로 일깨워주려고 한 것 같다. 엄마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만든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본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림으로써 잊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엄마라는 존재를 찾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 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부끄러운 지난날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딸이 외국 여행 중에 피에타 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 표현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엄마에게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한다.

친숙한 성화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탕자인 작은 아들의 어깨에 놓인 아버지의 두 손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드러낸다. 그림 속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탕자를 회개하는 우리들 자신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이 그림은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모성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은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려준다. 책 속의 딸이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 또한 이제는 자식을 둔 엄마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은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지 않을까?



제 1 독 서 이사 11,1-10
 화 답 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제 2 독 서 로마 15,4-9
 복 음 마태 3,1-12

주일 진례